



(재)남구장학회의 첫 장학증서수여식을 마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남구장학회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복 터진 남구…올해 35개 정부 표창

받은 상금만 7억8300만원… 현장중심 행정문화 정착 등 큰 역할

남구가 2017년 한 해 부산시와 정부로부터 35차례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부산으로 받은 재정인센티브(상사업비)가 7억8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받은 상사업비는 전액 관련 사업이나 주민복지에 재투입해 사업 추진의 원활을 역할을 했다.

남구의 뛰어난 수상 실적에는 현장 중심 및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문화

가 자리 잡은 데다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 직원들의 전문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남구는 집계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데 역점을 둔 덕택에 올 한 해에만 행정안전부로부터 두 차례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을 받아 2억 원의 상사업비를 얻는 쾌거

를 이뤘다. 또 지난 7월에는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2017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남구는 지난해 총 1만21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괄목한 성과를 내 고용노동부장관상과 함께 9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밖에 지난 11월에는 행정 전 분야의 업무수행능력을 측정하는 2017년 정부합동

평가에서 부산시 최우수상을 받는데 이어 부산시가 주관한 2017 구군교통분야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각각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의 행정능력을 평가하는 부산시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기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부산외대 부지 공익개발… 이기대공원 내 사유지 매입”

서병수 부산시장 남구 주민과의 대화서 밝혀
문헌동 생태숲 조성사업도 부산시 지원 약속

우암동 부산외대 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시와 학교 측이 부지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매입) 결정이 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부지를 사들여 공공도서관과 청년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지난 22일 남구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가진 현장 소통토론행사에서 현안사업과 관련된 주민 건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주민과의 대화에 앞서 서 시장은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지와 남구 복합철사 건설지(대연동 만방위교육장) 등 남구의 현안사업장을 찾아 사업현황 등을 살폈다.

이어서 구청을 방문해 주민지원과, 민원연과 등 부서를 둘러본 뒤 신규직원들과 오륙도 휴카페에서 담소를 겸한 티타임을 가졌다. 또 남구의회를 방문해 남구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서 시장은 구청 1층 대강당에서 1시간 남짓 남구 주민들과 현안사업과 관련해 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현장소통 토론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각 동을 대표하는 지역주민들과 구청장, 시·구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외대 이전으로 상권이 쇠락하고 지역이 슬럼화 되고 있다는 주민의 목소리에 서 시장은 부산외대 캠퍼스 활용방안에 대한 부산발전연구원 용역 결과가 곧 나온다고 설명 한 뒤 부지는 주민편의 공간 등으로 공익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곧 도래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이기대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 내 사유지를 부산시가 매입해 달라는 주민 건의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 분양 예산 2000억 원을 들여 이기대와 청사포 내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사들일 방침”이라고 배석한 시청 간부가 설명했다. 이밖에 문헌동 생태숲 조성의 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내년 대연동 재개발 구역 신축 아파트 입주로 야기될 교통난을 남구청과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회기년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건립 등 5개의 특화사업을 완료했다. 현재는 유엔창조기념거리 조성사업과 청년창조발전소 건립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구 지정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유엔평화문화 컨테츠사업 개발과 남구의 지역 브랜드 가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607-4041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남구장학회 첫 장학금 수여

고등·대학생 29명에 1650만원… 내년엔 인원 확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남구장학회(이사장 성재영)에서 첫 장학금을 수여했다. 남구장학회는 지난 22일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남구 내 거주 고등학생 25명과 대학생 4명 등 29명에게 총 16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고등학생에겐 50만원, 대학생에겐 1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학회 임원과 시·구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문화원연합회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주민 추천 등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은 3년 이상 남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들로 성적우수 장학금(학업성적 80%, 생활수준 20%)과 생활 형편을 고려한 희망 장학금(학업성적 50%, 생활수준 50%)으로 나눠 선발됐다. 대학생 장학생

은 전원 성적 기준으로 뽑았다.

남구장학회 성재영 이사장은 “교육도시 남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남구장학회에 첫 장학생을 배출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남구장학회는 지난해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정식 출범했다. 장학 기금은 2020년까지 남구청과 민간이 50대 50 방식으로 총 40억 원을 모을 계획이다. 올 연말 현재 26억 원이 모였다. 남구장학회는 기금 이자가 쌓이는 내년부터 장학생 인원을 올해보다 50% 가량 늘려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장학회는 장학회 사업에 참여할 뜻 있는 지역인사나 후원자를 지역과 상관이 없는 연중 모집하고 있다. (재)남구장학회 사무국(남구 중무과 ☎607-4105)



2018 무술년 오륙도 해맞이행사

·일 시 : 2018년 1월 1일 07:00
※ 일출시간 07:32
·장 소 : 오륙도스카이워크 광장
·내 용 : 대북공연, 새해덕담 등
·문 의 : ☎607-4062

남구 2018년 예산 3288억원

재개발사업 등 세수 늘어 2017년보다 562억원 증액

2018년도 남구 예산이 3288억원으로 확정됐다. 일반회계 3107억원, 특별회계 181억원으로 2017년 2725억원보다 562억원이 늘었다.

남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데는 대연동과 용호동 지역의 아파트 준공과 문헌동 지역의 대형 건축물 신축 등으로 세수여건이 개선되고 실내빙상장 개장, 대연6동주민센터 이전, 용호공원 복합문화센터 등 대규모 공공시설 증가와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 보안등·가로등 개선 등 공공기반시설 및 생활안전을 위한 투자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 771억원, 의존수입 등 2336억원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588억원, 기본경비 61억원, 정

책사업비는 2439억원, 재무활동비 19억원이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예산으로 기초연금 882억원, 영유아보육료 173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인 아동수당에는 65억원이 편성되어 총 1629억원이 책정됐다.

주요 투자사업으로 남구 복합철사 건설 9억원, 국민체육센터 태양광발전 설치 8억 9300만원,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및 증축 6억 7000만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2억 7500만원, 경로당 개보수 1억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원, 노후가로등 교체 2억 9000만원, 대연3동 용소부락지내 5개소의 도로개설 사업 51억원, 대연천 해수유입 방지시설 설치 2억 5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잡’ 개소

부경대 맞은편… 상품개발 등 일자리창출 기대

남구 관내 4개 대학의 청년 창업을 돕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잡’이 경성·부경대 대학가에 문을 열었다. 부산진구(동의대), 금정구(부산대)에 이어 부산에서 세 번째다.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잡’은 부산시 보조금 39억원으로 대연동 540-8번지(부경대 정문 맞은편)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매입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연면적 1,149.45㎡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창조공작실, 1층 갤러리, 아트샵, 2층 영상실·창작실, 3층 공연장, 4층 미디어강의실, 5층 애니메이션 영상제작실로 꾸며졌다.

청년창조발전소는 대학과 청년이 어우러져 문화, 예술, 공연 및 콘텐츠 개발과 창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청년들이 창작 활동한 상품개발로 수익창출, 나아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도울 예정이다.

청년창조발전소의 운영은 동명대학교를 비롯한 부경대, 경성대, 부산예술대, 부산국제디자인제, 유니온카드, 극단도깨비, 광안공예연구소 등 8개 기관 및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청년창조발전소는 27일 개소식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한편 청년창조발전소를 조성한 남구청은 동명대학교와 시설·프로그램 진행 등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JOB”

층	주요시설	주요내용
B1	예코 창작디자인실	디자인 개발, VR/AR 등 4차 산업
F1	갤러리, 아트샵	창작 및 개발 상품 전시판매
F2	문화콘텐츠 및 인문학창작소	특구 콘텐츠 개발, 인문학 강의
F3	공연무대	문화예술 창작 기획 및 공연
F4	미디어강의실	미디어 사업 기획 및 교육
F5	3D프린터, 애니메이션제작소	3D프린터 관광 상품 개발, 애니메이션 창업 및 컨설팅

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 변경

〈24번·583번〉

〈남구2·남구2-1 통합〉

12월 30일부터 적용

부산시는 지난 5일 교통개선실시위원회 제3차 버스노선 조정심의를 통해 남구를 통과하는 24번, 583번의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했다. 또 마을버스 남구2번과 남구2-1번의 노선을 남구2번으로 통합해 운행하도록 했다. 바뀐 노선은 12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시내버스의 경우 24번은 백운포 종점에서 이기대입구로 바로 가던 기존 노선을 백운포에서 오륙도스카이워크를 경유해 이기대 입구로 향하도록 조정했다. 583번은 ‘LG메트로시티~대남교차로’ 기존 노선에서 ‘LG

메트로시티~분포우체국~용호만유람센터미널~대남교차로’로 구간을 추가했다.

마을버스 남구2번과 남구2-1번의 노선 통합으로 버스는 ‘오륙도선착장~LG메트로시티~하이츠자이~도로교통공단~경성대·부경대역~대연역~동천초등학교’를 모두 오가게 됐다. 노선통합으로 인해 전체 운행거리와 소요시간은 다소 늘었지만 반면에 배차 간격은 10분 가량 줄어든 전망이다.

이번 버스 노선조정 및 통합으로 용호만 요트, 오륙도스카이워크, 이기대 갈맷길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UN평화문화특구 지정 2020년까지 3년 연장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유일의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지정이 2020년까지 3년간 연장됐다.

남구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제4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특구 기간 연장 및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남구UN평화문화특구는 2010년 2월 UN 사무국으로부터 세계에서 유일하게 UN평화정지 사용 승인을 받아 그해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유엔기념공원 일대 57만4147㎡가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됐다. 이후 8년 간 1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엔평